

소통으로 가는 첫 걸음, 총장·학생 간담회 개최

제1차 총장·학생 간담회가 8월 22일 한국체육대학교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총장·학생 간담회는 총장과 학생, 학생과 대학 사이의 소통창구를 마련하는 동시에 대학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또한, 비대면 학사 운영 방식으로 단절되었던 학교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를 향한 관심을 끌어내고자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자리에는 대학 본부에서 안용규 총장(이하 안 총장)과 훈련학생처장 외 8명, 학생 측을 대표하는 총학생회와 총장 간담회 TF(Task Force)팀에서 송석 총학생회장, 김재훈 부총학생회장 외 5명, 총 17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TF팀이 준비한 질의문을 바탕으로 대학 본부와 대화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질의문에는 학생들이 학교에 건의하거나 물어보고 싶은 사안들로 이루어져 있다.

학생들의 의견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사안은 바로 교내 시설 문제였다. 첫째로 일반학과(생활체육대학) 학생들이 이용 가능한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TF팀은 우리 학교의 우수한 체육시설을 일

반 학생들이 이용하기에는 많은 제약과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방할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안 총장은 “교내 체육시설 개방 예정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체육시설은 각 부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배정되었기 때문에 선수들의 훈련을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운동부가 건물을 사용하고 나면 나머지 시간을 이용해 일반 학생에게도 개방하겠다.”라며 검토 의사를 밝혔다. 또한, 약 180억 원 정도의 실내 체육관 예산을 확보했다며 추후 일반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설립을 전망했다.

두 번째로 TF팀은 부족한 학생 교육·복지 시설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이들은 현재 우리 학교에 학생들을 위한 교육 공간 및 복지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신축 도서관 활용 계획으로 올림픽 기념관을 한 층에 배치한 점을 지적했다. 이어서, 새로 지어진 도서관 활용 계획에 학생 교육·복지 공간을 우선 배치하는 것에 대한 학교 측의 입장을 물었다. 안 총장은 “올림픽 기념관은 우리 학교가 가



안용규 총장이 TF팀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진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장소이다. 우리 학교 출신들이 가진 기념되고 상징적인 물건들을 전시해 학교를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선보일 장소는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TF팀의 교내 강의실 책상과 의자가 불편하다는 의견에 대학 본부는 “새로운 책상과 의

자의 결제를 이미 마친 상태이며 9월 17일, 18일에 교체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추가로 행정 절차상의 학생 의견 반영 문제에 관해서도 논의됐다. TF팀은 학내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회의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피력하기에는 회의 참석 구성원 등의

회의체 구조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회의체 구조 개편, 학생 계시관 운영 등 공정한 학내 구성원의 의견 반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안 총장은 “학생 계시관 등 학생들이 의견을 피력할 공간이 필요하다면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이전에도 학생 계시관이 있었다. 하지만, 익명으로 진행했더니 수많은 비난의 글이 있었다. 때문에, 실명으로 진행한다면 추진하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외에도 수강 신청 문제, 주차권 문제, 로고 원복 과정 문제 등 학생과 학교 간 소통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간담회에 대해 총학생회는 “총장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서 좋았다.”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총학생회가 총장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임을 알리고 학생을 위해 행동했음을 보여줄 수 있어서 뿌듯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하지만, “충분한 대화를 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과 재학생 참여 인원이 없어서 아쉬웠다.”라며 안타까움을 남겼다.

장재인 편집장 202090032@m365.knsu.ac.kr

한국체대 제44대 총학생회 with:u, 총장 선거 투표 비율 결정에 규탄

한국체육대학교 개교 이래 최초로 제44대 총학생회 with:u (이하 위드유 총학생회)가 총장 선거 투표 비율 결정에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9월8일에 학교 정문에서 진행했다. 올해 말에 예정되어 있는 본교 총장 선거 투표 비율 개정과 관련해 제3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에서 ‘교원, 직원·조교, 학생·동문의 투표비율 100을 기준으로 각각 70:20:10으로 한다.’라는 제1안이 통과된 지 이틀 만의 일이다.

우리학교 대학 총장 선거 투표 비율에 대한 논의 배경은 지난해 9월, 정부가 진정한 대학 총장선거 민주화를 위해 개정한 교육공무원법이다. 개정 전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에서 ‘해당 대학 교원, 직원 및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으로 개정된 것이 핵심이다. 과거 교원의 합의만을 필요했던 개정 전 교육공무원법을 토대로 정해진 기존 우리학교 총장 선거 시행 세칙에 따르면 학생 투표 반영 비율은 5%이다. 학내 구성원 대다수가 절대적으로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투표 반

영 비율은 교원이 83.3%, 직원이 11.7%이었다. 이를 구성원수로 환산해보면 교원은 1인 1표인 반면 학생은 0.002표, 즉 교수1명과 학생500명의 표가 맞먹는 수준이다.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학교도 새롭게 교원, 직원 및 학생이 합의된 방식으로 총장 선거 비율 개정이 필요했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못했다. 법령에 모든 구성원이 동의하는 ‘합의’가 명시되어 있지만 이를 결정하기 위해 열린 대학평의위원회에서는 과반수의결을 통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것이 문제인 이유는 대학평의위원회는 구성단위가 총 14명의 위원 중 절반 이상인 7명이 이미 교원으로 배정되어 있는 교원 중심의 회의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원을 제외한 일부 위원들과 학생대표들은 위 개정안(교원, 직원·조교, 학생·동문의 투표비율 100을 기준으로 각각 70:20:10으로 한다.)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추가적인 논의 없이 출석 위원의 과반수 단순 표결로 진행해 교육공무원법에서 명시한 ‘합의’의 개념은 찾을 수 없었다.



한국체육대학교의 진정한 학생자치 및 민주화를 위해 위드유 총학생회와 공동대응에 함께 참여한 학우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위드유 총학생회는 지난해부터 공약으로 내걸었던 ‘총장직선제 학생 반영 비율 확대’를 위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해 교원, 직원·조교, 학생·동문의 투표비율을 각각 1:1:1로 동일하게 나누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이번에도 학생의 의견은 묵살되었다. 하지만 총학생회는 이후 즉각적인 공동선언문 및 교

내 최초의 기자회견과 학생공동대응을 진행하며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한국체육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총장 선거 시행 세칙 개정의 모든 과정을 함께한 송석 총학생회장은 해당 일에 대해 “정부에서 교원, 직원 및 학생의 합의라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합의 없이 졸속적인 표결 결정을 한 대학 본부가 유감스럽다.”라며 “이제는 하나의 관습처럼 이어져 온 대학 본부의 독단적인 결정을 그냥 바라만 볼 수 없다.”고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구했다.

이종원 기자 201830028@m365.knsu.ac.kr

편리함을 위한 불편함

체육과학관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사가 개강을 맞이한 학생과 교직원들을 포함한 학교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공사를 위해 도로를 통제하면서 차량 이동과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해당 공사는 노후 배수로 교체 및 도로포장을 위한 공사이다. 현재 우리 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배수관과 도로는 본교의 송파구 이전 이래로 지금까지 한번도 교체하지 않았다. 심지어 설치된 배수관은 크기가 작을뿐더러 노후까지 되면서 천마생활관이나 식당 등에서 배출하는 오수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학교는 약 2년 전부터 공사를 계획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대면 강의가 시작된 지금, 공사를 진행하는 걸까. 시설과에서는 예산배정 및 계약 과정 기간 때문으로 설명했다. 해당 공사에 대한 예산은 올해 초 3월에 배정되었다. 이후 도로 설계를 약 2개월간 진행하고 공사를 진행할 업체와의 조달 계약을 약 1달 동안 진행했다. 결국, 올해 6월 20일부터 공사가 진행된 것이다. 공사 종료일은 9월 17일로 예정되어 있다.

하지만, 인터뷰를 진행한 건축팀 관계자(이하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공사가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땅을 파더니 예상하지 못한, 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30년



체육과학관 앞에 공사로 쌓인 돌들이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옆으로는 체육학과 학생들이 좁은 통로를 이용해 달리고 있다.

전 관로가 나오고 있다. 비 또한 내려서 공사가 늦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화장실과 식당에서 계속해서 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관로를 연결하기 쉽지 않다. 대면 수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건물을 완전히 통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대로라면

10월 말까지 갈 것 같다”라며 답답한 심정을 전했다. 관계자는 “더 나은 시설 이용을 위해선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이해해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장재인 편집장 202090032@m365.knsu.ac.kr

인사

■ 퇴임

류지선 교수

장덕선 교수

■ 신규 임용

김수희 부교수 (체육학과)

남정훈 조교수 (산학협력단)

스승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체육대학교에 마음안심버스가 찾아옵니다

송파구 보건소 협업 마음안심버스 심리지원

- 기 간: 2022년 9월 20일 (12:00~16:00 / 4시간동안 수영장 건물 주변 상주 예정)
- 목 적: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동력 있는 마음안심 버스를 활용하여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건강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치료개입하기 위한
- 대 상: 마음안심버스 심리상담 참여를 희망하는 재학생 및 교직원
- 세부내용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마음안심버스 심리지원 운영, 에 따라 마음안심버스를 대여하여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
 - 정신건강 검진 및 스트레스 측정, 정신건강 심리상담 평가진행
 - 고위험군 발굴하여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의료, 사례관리 진행
- 주관 및 문의: 한국체육대학교 인재개발원 심리인권지원센터 (02-410-6682)

※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